



과천관



서울관



덕수궁관

국립현대미술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CONTENTS

04	국립현대미술관 소개
06	과천관 자연 속 미술관
08	서울관 도심 속 미술관
10	덕수궁관 고궁 속 미술관
12	미술관 소장품
22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 창동·고양레지던시
24	미술관 주요시설 과천관·서울관
29	미술관 편의시설·서비스 아트숍·아트버스
30	국제교류
31	문화행사 막계페스티벌·패션쇼·인디밴드 콘서트
32	미술관 투어맵
38	미술관 연혁



자연속 미술관 과천관

1986년에 완공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은 주변 자연환경과 서로 어우러져 있어 자연미와 인공미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건축가 김태수는 한국의 전통적인 공간 구성 방식을 현대적 기능에 적용시켜 전통과 현대적인 감각이 표현되도록 설계하였다. 과천관 디자인에는 한국의 성곽과 봉화대의 전통양식이 투영되어 있고 봉화대형 램프코어를 중심으로 동편에는 3개 층, 서편에는 2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천관은 총 8개의 전시실을 갖춘 관람객 중심의 미술관으로 한국 근·현대미술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기획전으로 구성되는 1층의 1, 2 전시실을 비롯하여 건축·공예·사진·회화·조각·미디어 등 미술 분야별 전문성을 살린 6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미술관 로비에 위치한 어린이 미술관은 교육 목적이 공간으로 활용·운영되고 있고, 미술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수집·정리·보존·활용하기 위한 미술연구센터를 갖추고 있다.

대지면적	66,916m ²
연면적	37,500m ²
전시공간	1,1530m ²
주요시설	야외조각장, 전시실 8실, 어린이미술관, 미술연구센터, 도서자료실, 레스토랑, 아트숍, 소강당, 대강당, 주차장 등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도심속 미술관 **서울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미술관 건축물의 특성을 살리고 지리적 여건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무형의 미술관', '일상 속의 미술관', '친환경 미술관'을 지향하고 있다. 건물 내외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다중적 용도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마련된 6개의 마당 주위에 건물이 배치되어, 미술관과 관람객과 의 관계정립에 대한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21세기 미래지향적 미술관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관은 전시동 및 교육동을 비롯하여 디지털정보실, 다목적홀, 영화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복합문화예술센터이다. 현대미술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다채로운 전시와 영화, 공연, 교육 등을 통한 다양한 장르의 동시대 문화예술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마당으로 둘러싸인 서울관은 옛 기무사 건물과 종친부가 조화를 이루고 있고, 멀리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안에 담긴 인왕산의 모습도 감상할 수 있다.

대지면적 27,264m²
연면적 52,125m²
전시공간 8,789m²
주요시설 전시실 8실, 다목적홀, 영화관, 디지털정보실, 작업실 2실, 세미나실 3실, 강의실 3실, 멤버십라운지, 아트존, 카페테리아, 푸드코트, 북카페 등



:덕수궁관 소개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Deoksugung



고궁속 미술관 덕수궁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석조건물인 덕수궁 석조전에 1998년 개관하였다. 우리나라 근대미술을 체계화하고, 우리 민족의 문화 역사적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과천관이 국내외 현대미술을 주로 다루고 있다면, 덕수궁관은 한국의 근대기 약 1900~1960년대까지의 미술과 아시아 및 국제(International) 근대미술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근대미술의 조사, 연구, 근대미술 관련 기획전 및 소장품 전시,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학술활동과 출판, 근대미술 관련 정보의 국제적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면적 3,428㎡

전시실면적 1,152㎡

주요시설 전시실 4실, 아트숍, 회의실, 시청각실





백남준(1932~2006) 다다익선, 1988
1003대의 TV 수상기, 지름 7.5m, 원형 18.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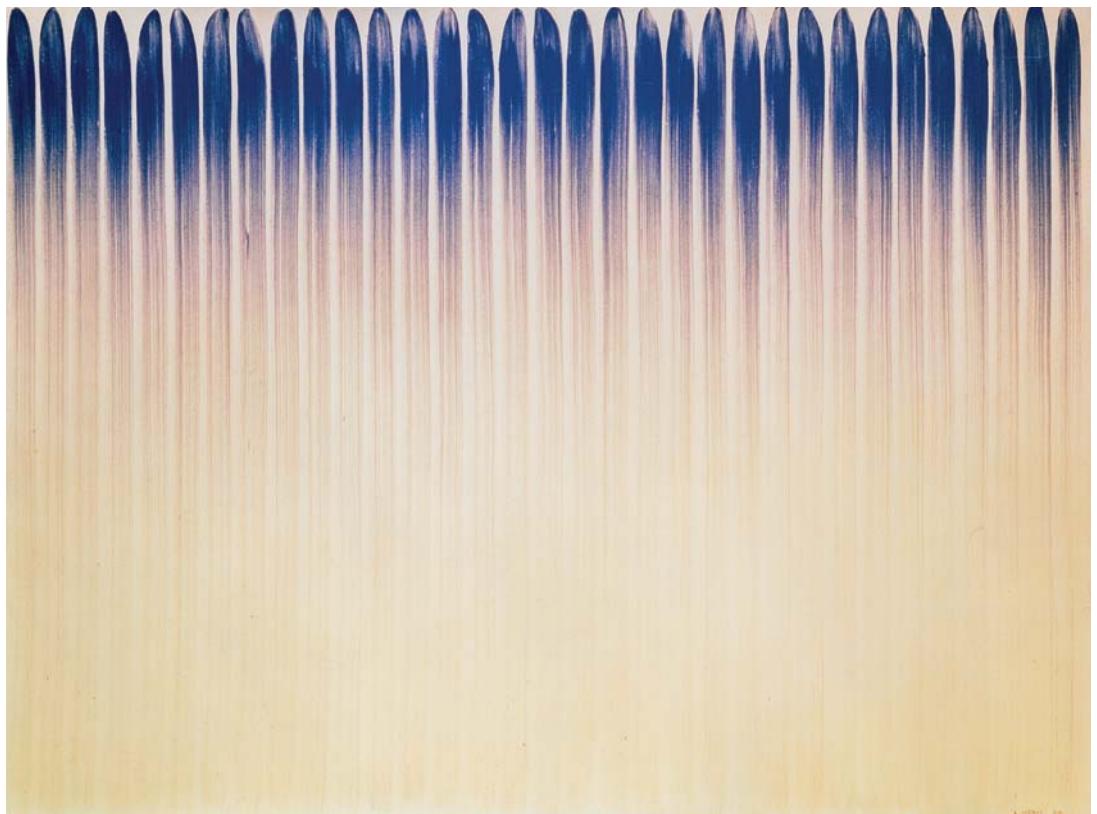


박수근(1914~1965) 할아버지와 손자, 1960
캔버스에 유채, 146x98cm,
PA-00100

백남준은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1950년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1956년 동경대학 문학부에서 미학 · 미술사학을 전공했다. 그 후 독일로 건너가 뮌헨 대학, 쾰른 대학 등지에서 전자음악을 공부하며 전위 음악의 거장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중 존 케이지는 그의 예술관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존 케이지의 사상은 백남준에게 과거 전통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힘이 되었으며 1960년대 초 행위 예술 단체인 플럭서스 그룹의 일원으로 많은 해프닝과 이벤트에 참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백남준은 1963년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최초로 TV를 미술에 도입해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가 되었다. 그의 <다다익선>(1988)은 1003대의 TV 모니터로 구성된 작품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이 '88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1003이라는 숫자는 시월 삼일 개천절을 상징하는 것으로 백남준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박수근은 '민족의 화가', '서민적 체취의 화가', '우리의 화가'로 일컬어진다. 이는 박수근의 삶과 예술을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말인 동시에 박수근 회화의 본질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이러한 수식어는 박수근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 끈질긴 생명력으로 이 땅을 지켜온 서민들의 삶을 자신만의 독특하고 질박한 마티에르와 암갈색 또는 회갈색의 단색조 화면을 통해 그려내 붙여졌다. 박수근 말년에 그려진 <할아버지와 손자 Grandfather and Grandson>는 매우 평면적인 화면 위에 흐릿한 경계로 그려져 마치 암벽 위에 새겨진 토속적인 불상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어 바람과 비로 지워진 시간만큼이나 서정적인 정감을 불러일으킨다.



이우환(1936-) 선으로부터, 1974

캔버스에 유채, 194x259cm,
PA-02261



서세옥(1929-) 사람들, 1989

화선지에 수묵, 164×260cm,
KO-03180

이우환은 서구의 미니멀리즘을 동양적 사고와 감성에 근거하여 재해석한 모노하의 독보적 이론가이자 작가이다. 밑칠을 하지 않은 커다란 캔버스 위에 무수한 색 점과 선들을 반복적으로 찍고 그리는 과정 속에서 작가의 존재는 무의미해지고 궁극적으로 완성된 작품은 탈아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축약된 모노크롬의 화면은 나름의 점들에 의한 구성 질서에 의해 정리되면서 무한의 동양적 정신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선으로부터 From Line>은 흰 캔버스 바탕에 파란색 선들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길게 내려 그어가면서 그 흔적을 담은 것이다. 선명한 푸른색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점차 그 자취가 사라지면서 희미해진다. 이러한 선은 결과보다는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 내재된 본질적인 의미를 부각시킨다.

현대 한국화의 구심적 역할을 한 산정(山丁) 서세옥(1929-)은 광복 후 등단한 젊은 세대의 대표적인 작가로 묵림회 결성을 주도하고 수묵화의 현대적 추상 작업을 비롯한 한국화 혁신에 앞장서며 국제전에도 다수 참가하였다. 그는 모더니즘의 순수성과 문인화의 사의 정신을 결합시켜 발록 기법과 필선의 운용을 통해 추구하였다. <사람들 People>은 그가 즐겨 다루어 온 연작 중 하나로, 절제된 멱 선의 수묵기법과 간결한 포치를 통하여 인간 군상의 이미지를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해내고 있다. 한국화의 현대적 조형 실험과 추상적 형식미에 관심을 기울였던 작가만의 독특한 회화 세계는 한국 현대 수묵 추상의 선구자적 위치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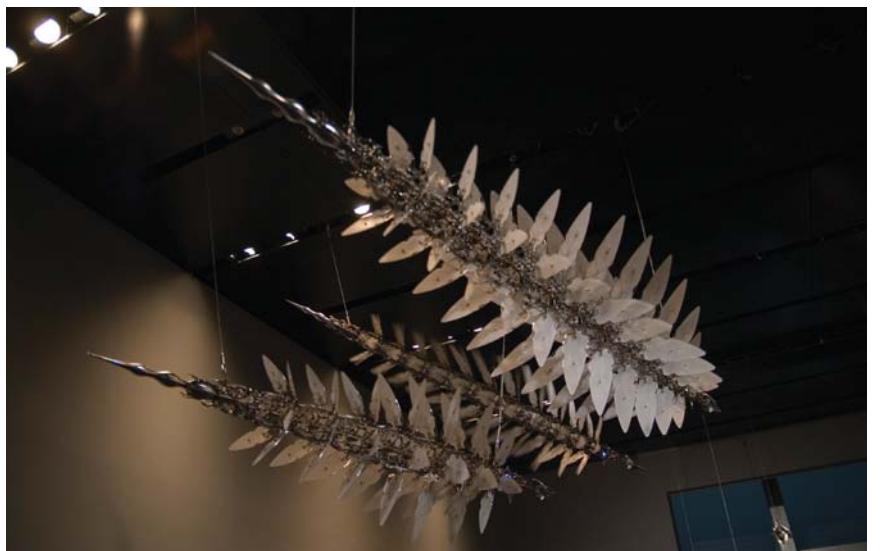
박생광(1904~1985) 전봉준, 1985
화선지에 먹, 채색, 360×510cm,
KO-03830



권진규(1922~1973) 지원의 얼굴, 1967
테라코타, 50×32×23cm,
SC-00170

내고(乃古) 박생광은 죽기 며칠 전 “역사를 떠난 민족은 없다. 전통을 떠난 민족예술은 없다. 모든 민족예술은 그 민족 전통 위에 있다”라는 글을 남겼다. <전봉준>(1985)을 비롯한 후기작들은 그의 이러한 생각에 기반하여 제작된 것이다. 특히 이 작품은 그 거대한 크기(5.1m × 3.6m)로 인해 민족역사에 대한 기념비적인 성격까지 가지고 있다. 전봉준은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로서 민중들의 외세척결에 대한 의지, 봉건군주에 대한 반기를 상징하는 한국의 민중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인물로, 박생광은 그를 역사적 사건(전주성 공략)과 함께 다루고 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화면 중앙에 위치한 전봉준 뒤에 업혀 있는 인물이 박생광 자신이라는 점이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전봉준으로 대표되는 한국 민중의 전통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도 역시 화려한 색채의 사용, 면분할 등 그의 후기작의 특징이 모두 잘 나타나 있다.

권진규는 소외감과 생활고로 자살하기 전까지 당시 조각의 주류와 무관한 자기만의 독특한 언어를 확립하였으며, 그의 작품은 자아의 내면세계로 향한 깊은 성찰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테라코타(terracotta)에 의한 격조 높은 일련의 초상조각들은 그의 가장 주된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고딕적 엄숙성과 영원성이 재료가 주는 신비로운 분위기와 결합하여 더욱 정적인 사색의 깊이를 부여해주고 있다. <지원의 얼굴>(1967)은 그의 다른 작품 <비구니>와 매우 유사하다. 길게 늘어진 목과 부드럽게 흘러내린 어깨, 단순한 옷 매무새, 얇은 수건으로 매어져 언뜻 보기에 비구니와 같은 인상을 주고 있으며 영원성을 갈구하는 눈빛에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엿볼 수 있다.



최우람(1970-) 어바너스(암컷, 수컷), 2006
금속조형물, 기계장치, 메탈할라이드램프, 전자장치,
218.4×86.4×58.4, 25×25×187×(2), 25×25×287cm,
SC-05885

최우람은 무생물에 운동성을 부여하는 작업을 주로 진행하며, 작가가 만든 작품 속 기계는 대체로 벌레나 곤충, 전기담쟁이, 다이오드 민들레 같은 생명체의 형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계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잠식해가는 인간 자신의 피조물들이 스스로 군집하여 번식하고 진화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이 탄생하려는 종과 나와의 관계를 탐구하는 실험의 결과물이다. 〈어바너스(암컷, 수컷) Urbanus(Female, Male)〉 역시 이러한 작업의 연장선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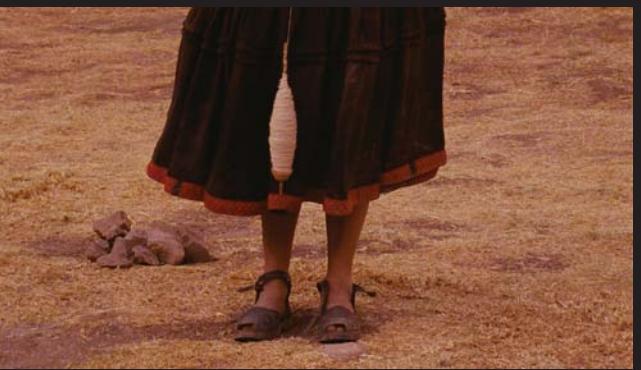


빌 비올라(1951-) 트리стан의 승천, 2005
영상, 소리 설치, 가변크기,
NM-06641

중세의 고전적인 연애담을 오페라로 각색한 리차드 바그너의 〈트리стан과 이졸데〉에서 영감을 받은 트리斯坦 프로젝트(The Tristan Project)를 대표하는 두 작품 중 하나이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물으며 마치 성스러운 종교화를 대하는 것처럼 죽음과 부활의 이미지를 통해 관객을 경건과 경이로움, 그리고 진한 감동으로 이끈다. 가장 하이테크적인 매체를 사용하면서 지극히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세계를 담아내는 빌 비올라의 장점이 극대화된 작품이다. 특히 고속 촬영을 통한 슬로모션은 특정한 시간을 새로운 공간으로 전이시키고, 시간의 속도를 늦춤으로써 현실을 비껴서 그 너머의 세계를 사유하게 한다.



배병우(1950-) sea1a-025hc, 2001
C-프린트, 181×306cm,
PH-06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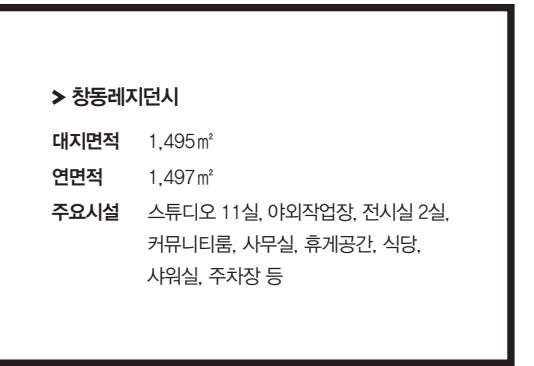


소나무 사진으로 유명한 사진작가 배병우는 디자인을 전공한 후 독학으로 사진을 공부하며 모흘리 나기, 에드워드 웨스턴의 사진세계에 심취해 이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배병우는 스페인 정부의 의뢰로 세계문화유산인 알함브라 궁전의 정원을 2년간 촬영하는 등 세계무대에서 주목받는 동시에 90년대 이후 국내 사진계가 급팽창하도록 이끈 주역이다. 배병우의 창작은 그가 자리온 고향인 남도지방의 나무와 바다 등의 풍경을 재해석하는 과정이다. 여수에서 태어나고 자란 배병우에게 바다는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된다. 1970년대 후반부터 배병우는 홍도, 완도, 백도, 소라도와 같은 남쪽 섬들의 해안에서 등대나 파도, 바위섬 등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바다시리즈 초기 작품들은 전체적인 분위기보다는 흑백 톤으로 바다의 물결과 암석의 선을 부각시키는 특징이 있다. 최근의 바다사진은 전체적인 톤이 밝아지고 시간의 변화에 따른 미묘한 빛의 변화, 안개와 같은 대기의 변화까지 포착함으로써 수묵화와 같은 느낌을 배가시킨다.

김수자는 〈실의 궤적〉을 통하여 세계의 다양한 직물문화 지도를 바탕으로 실과 일상 속의 심리적이고도 형식적인 근원과 여정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김수자는 지리적 특성에 의해 다른 모습으로 형성된 삶의 흔적을 따라 실의 궤적을 드러내며 각 문화들의 구조적인 연관성을 담아낸다. 바느질, 직조, 또는 레이스 짜기와 같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위들을 통해 세계 각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삶의 궤적을 찾아가는 이 프로젝트는 총 6부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챕터 1인 이 영상은 페루에 위치한 쿠스코 주변의 성스러운 계곡(the sacred valley)에서부터 마추피추, 타킬레섬마을에 이르는 아름다운 시각적 여정을 보여준다. 서로 다른 관습과 정서를 반추하는 실의 문화를 통해 그 지역만의 고유한 풍경과 일상 속의 미학적이고 인류학적인 관점을 다룬다.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 창동·고양레지던시

창동·고양레지던시는 미술작가들의 창작 여건 활성화와 한국 현대미술의 국제화를 위해 국립현대미술관이 운영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다. 입주 작가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된 작업공간과 편리한 작업여건을 제공하고,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 및 지원을 통하여 입주 작가를 홍보하는 것을 그 운영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픈스튜디오, 입주작가 전시회, 문화탐방 프로그램, 전문가방문 프로그램 및 국제교환·교류프로그램 등이 있다.



:주요시설
과천관 어린이미술관

과천관 어린이미술관은 현대미술의 개념을 새롭게 발견하고 체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전문 공간이다. 어린이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은 작가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수업, 상시로 이루어지는 기획 전시 교육, 미술을 구성하는 요소와 특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놀이형 물성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다양한 주제의 프로젝트 수업과 공간별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어린이미술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 전시실면적 1,135m²

> 주요시설 상설 체험 공간, 기획전시 교육 공간, 어린이 도서 공간, 정보검색 및 휴게 공간 등



:서울관
교육동

서울관 교육동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세미나, 워크숍 등이 이루어지는 교육 공간이다. 어린이, 청소년, 가족, 성인, 전문인 등 동시대 미술문화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 대상별 교육과 전시연계 프로그램 및 문화 행사를 운영한다. 또한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기체험을 제공한다. 현대미술과 보다 가까이 소통 할 수 있는 교육과 문화행사를 통해 일상 속 열린 미술관 및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제시한다.

> 주요시설 강의실 3실, 세미나실 3실, 작업실 2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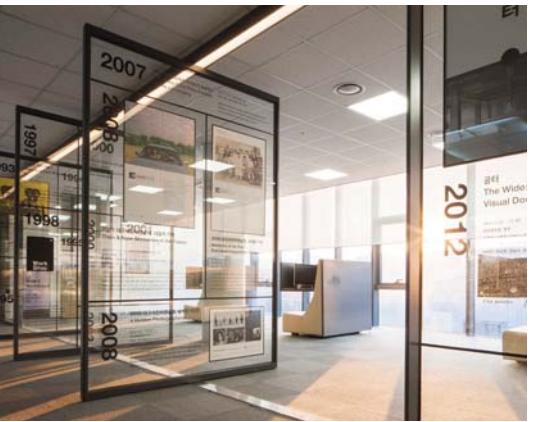
: 과천관 미술연구센터

과천관 미술연구센터는 한국 및 아시아 근현대미술의 이해와 연구를 목적으로 2013년 10월 문을 열었으며, 미술자료의 수집·관리·보존, 연구 활동 추진 및 지원, 미술정보 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술연구센터는 자료의 수집, 보존, 열람을 위해 아카이브 전용 수장고, 원본자료 열람실,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다. 미술연구센터에 소장된 자료는 특수자료, 미술관자료, 도서자료로 구분된다. 특수자료는 20세기 한국예술가들의 스케치, 드로잉, 작가노트, 사진, 필름 등 광범위한 미술 관련 자료이며, 미술관자료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주요활동(전시, 교육, 연구, 학술 등)과 관련해 생산된 연구 가치를 지닌 자료를 지칭한다. 2014년 말 기준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은 특수자료 약 223,000점, 미술관자료 약 100,000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중 정리가 완료된 특수자료와 미술관자료에 대해 원본 열람 서비스를 하고 있다. 도서자료로는 미술 관련 일반도서 약 20,000종, 미술전문 학위논문 약 4,500종, 그리고 국내외 연속간행물 약 110종을 갖추고 있다.



: 서울관 디지털정보실

서울관 디지털정보실은 도서관과 기록물, 전시 등의 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라키비움(Larchiveum)으로서 국립현대미술관의 다양한 활동으로 생산되는 근·현대 미술 정보를 구축하고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향후 디지털 문화 환경 기반과 디지털 미술자료를 축적하여 일반인과 미술연구자들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개발·제공하고자 한다. 디지털도서관은 미술관 출판물, 현대미술 관련 단행본 및 전시도록, 연속간행물, 전자책, 웹DB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3층 디지털 아카이브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기관사 자료와 소장 작품 아카이브, 비디오아티스트 '박현기 아카이브' 등을 상설 전시되고 있다. 2014년 개관 이래 '구본창 아카이브전', '라인란트의 백남준전' 등의 특정주제 아카이브 전시도 연중 기획되고 있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시기부터 축적되어온 영상 아카이브 224점의 동영상 자료(싱글채널 비디오, 작가 인터뷰 클립 등)를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10여개의 개별 영상부스가 마련되어 있다. 30여석의 특별열람실은 미술관 소장 작가 아카이브 및 한국현대미술 주요작가의 자료를 구비하여 보다 심화된 미술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관 영화관·다목적홀

서울관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매체융합의 특성을 반영한 영화관과 다목적홀을 갖추고 있다. 특히 영화관(MMCA Film and Video)은 현대미술과 영화가 교차하는 현장이며 영화가 갖는 오락적인 재미까지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다. 멀티플렉스 극장과 동일한 최신 디지털프로젝터로 3D 영상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대형스크린이 구비되어 있으며, 입체적이고 풍부한 시각적 체험을 제공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 영화관 MMCA Film and Video

총 120여석 규모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영화관에서는 예술영화, 실험영화, 국제영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평소 접하기 쉽지 않았던 수준 높은 예술영화를 만날 수 있다.

○ 다목적홀 Multiproject Hall

다원예술, 전시, 퍼포먼스, 교육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지는 공간이다. 연습실과 가변식 의자를 설치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이로 인해 여러 장르가 융복합 되는 현대미술이 지닌 다양한 예술적 표현이 가능하도록 조성되었다.

- > 좌석 120석(휠체어 공간 별도)
- > 크기 12.8M(좌우)X20M(앞뒤)X8.7M(높이)
- > 프로젝션 DLP Projector(3D HD)
- > 스크린 Silverscreen, 1.85:1
- > 오디오 DOLBY, DTS 5.1

- > 좌석 253석 (접이식)
- > 크기 좌우 19.94M X 앞뒤 25.49M(객석 수납시)
X 높이 8.5/3.9M (테라스 아래)
- > 장비 음향, 영상, 무대 조명 설비 구비
- > 부속실 대기실, 남녀 분장실, 물품보관소, 연습실

:미술관 편의시설

● 아트숍

▶ 과천관 아트숍(Art Shop)

과천관 1층 주현관 우측에 위치한 아트숍에서는 다양한 미술문화 상품 및 아트북을 판매하고 있다.

▶ 서울관 갤러리 아트존(Gallery Art Zone)

서울관 1층 갤러리 아트존에서는 조각, 사진, 드로잉, 판화, 공예(도예, 장신구, 섬유, 금속 등)와 디자인 상품 및 디자인 가구 등 총 500여종 이상의 오리지널 작품이 전시 및 판매되고 있다.



▶ 덕수궁관 아트숍(Art Shop)

덕수궁관 2층 아트숍에서는 다양한 미술문화 상품 및 아트북을 판매하고 있다.

:미술관 서비스

● 아트셔틀버스

▶ 아트셔틀버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과천관, 덕수궁관을 오가는 ‘아트셔틀버스’에는 디지털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 탑승객이 이동 중 전시, 작가 그리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1일 4회 운영(화~금) : 10:00, 12:00, 14:00, 16:00

서울관 → 덕수궁관 → 과천관 / 과천관 → 서울관

▶ 서울관·과천관 셔틀버스 정거장, 덕수궁관 대한문 앞 시티투어버스 정거장 공동사용

문의사항 연락처 02-2188-6000(과천관), 02-3701-9500(서울관), 02-2022-0600(덕수궁관)



:국제교류

국립현대미술관은 세계 주요 미술관 및 예술 관련 기관과 협력 및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미술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국제교류 사업은 미술관 사업 전 분야와 연계되며, 국제협력전시나 국제학술행사도 함께 추진된다. 국내외 기관과의 MOU 체결 등 기관 간 중장기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주한 공관 등 미술 이외의 유관 기관과도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국가 수교 기념 등 계기별 국제 사업 개발과 함께 2005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문화동반자사업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 주요사업 국제기구 활동, 문화동반자사업, 대외기관 협력, 국제행사 개최



:문화행사

국립현대미술관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동시대의 다양한 장르 융합과 미술관만의 독창성을 선보일 수 있는 문화행사들을 기획·추진하고 있다. 작가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미술관 패션쇼', 계기별 특별 문화행사 '막계 페스티벌', 타 장르와의 조화가 두드러진 '인디밴드 콘서트' 등 특화된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관람객들이 이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전시를 감상하고 미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 막계페스티벌

매년 과천관 야외조각공원에서는 전시, 교육, 놀이, 공연이 어우러진 야외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청계산 자락의 맑은 물과 푸른 녹음 속 미술관에서 펼쳐진 '2014 막계 페스티벌'은 관람객 참여형 축제를 지향하며 아트북페어, 참여형 프로그램, 건축가 협업 프로젝트, 야외콘서트, 아티스트 퍼포먼스 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 '막계' 의미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이 위치한 '과천시 막계동'은 예로부터 청계산과 인접해 맑은 시냇물이 흐르던 지역으로 맑은 내, 맑내, 막내 등으로 불렸으며, 한자 '막계(莫溪)'로 표기하게 됨.



▲ 패션쇼

서울관 '아트 컬라보레이션 패션쇼'는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진흥재단이 협업한 첫 문화행사로, 서울관 전시동 로비부터 지하 1층으로 이어지는 복도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 갤러리 아트존의 기획전시 <패션, 음악, 그리고 대중문화>와 연계하여 마련되어 의상과 함께 음악, 퍼포먼스 미술 등 다양한 예술 영역을 아우르는 개념을 선보였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한국의 차세대 패션 디자이너 3인(Ironbound, 정재선, 신용균)은 서울관이라는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15분 동안 각자의 의상을 선보였으며, 600명이 넘는 관람객이 한국 패션의 창의성과 아트 컬라보레이션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경험하였다.



◀ 인디밴드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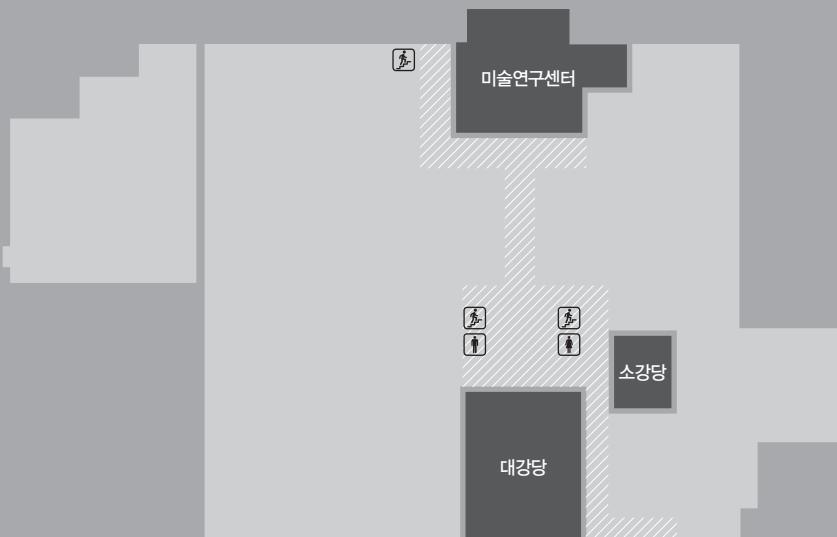
서울관 전시동 로비에서 열린 'MMCA Seoul 인디밴드 콘서트'에서는 독특한 음악성과 퍼포먼스를 선보인 다양한 인디밴드 그룹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 현대미술과 인디문화의 만남은 동시대의 정신을 탐구하고 표현한다는 점에서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색다르고 풍부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였다.

과천관 투어맵

B1

과천관 지하 1층에는 미술연구센터와 소강당, 대강당이 위치하고 있다. 미술연구센터에서는 다양한 미술 자료를 검색·열람할 수 있으며 소강당과 대강당에서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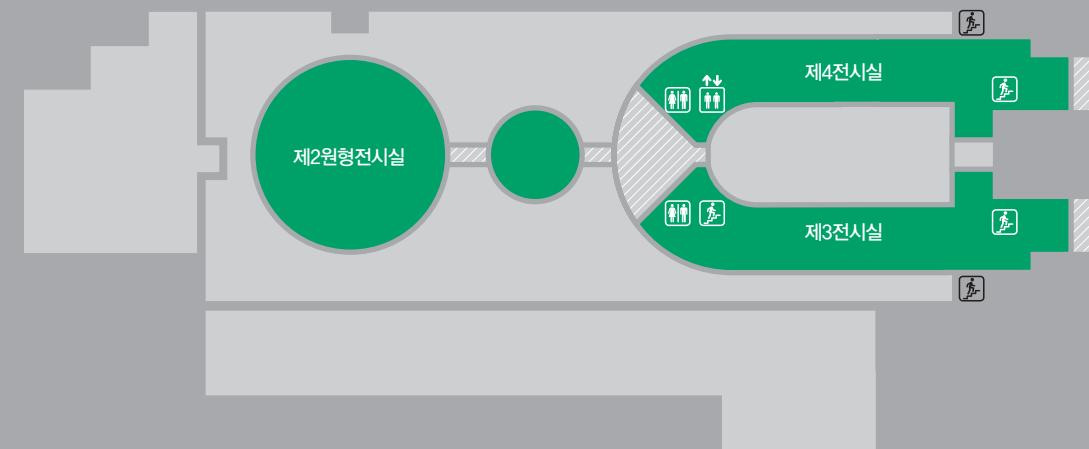
화장실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2F

과천관 2층에는 제2원형전시실과 제3전시실, 제4전시실이 위치해 있다. 전시관 특성화 전략에 따라 제2원형전시실은 공예와 도예, 제3전시실은 디자인, 제4전시실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매해 수집한 신소장품을 주로 선보이고 있다.

화장실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1F

과천관 1층에는 램프코어, 제1원형전시실을 비롯하여 3개의 전시실과 어린이미술관, 도서자료실, 아트숍, 매표소, 카페테리아가 위치해 있다. 미술관 건물 중앙에 위치한 램프코어는 모든 전시실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각 전시실을 잇는 연결통로로 한 가운데 백남준의 비디오팝〈다다익선〉이 설치되어 있다. 옥외조각장은 주변의 자연 경관과 어우러지는 미술관의 주요 공간이자 열린 휴식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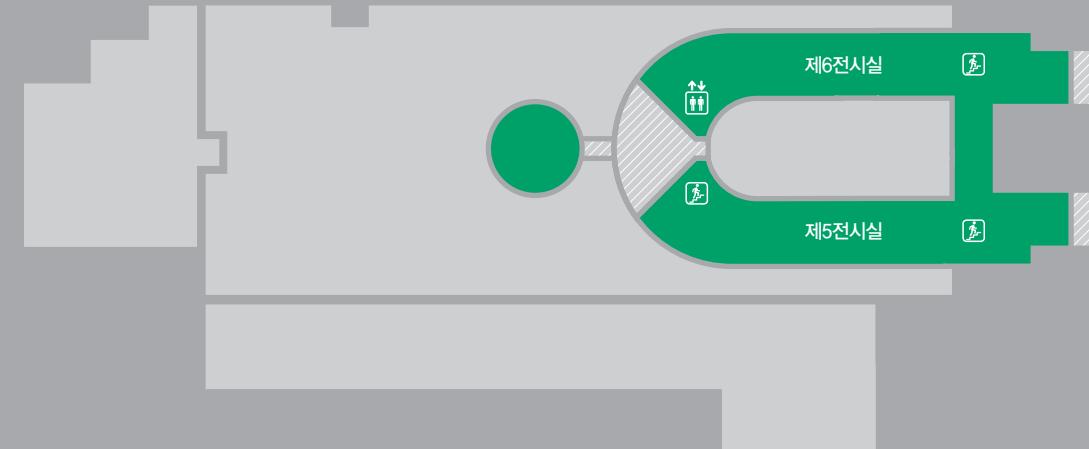
매표소
화장실
비상계단
물품보관함
엘리베이터



3F

과천관 3층에는 제5전시실, 제6전시실이 위치해 있다. 제5전시실은 건축을 주제로 하는 전시를 선보이며 제6전시실은 사진을 주제로 하는 전시를 주로 선보이고 있다.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서울관 투어맵

**B1
MF**

전시동 지하 1층은 서울박스와 전시마당을 중심으로 6개의 전시실과 다목적홀, 영화관, 미디어 랩이 위치하고 있다. 다목적홀과 영화관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 및 영화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중층은 지하 1층 다목적홀 앞 계단을 통해 이동 가능하며 응복합 설치 작품들이 전시된다.

- 안내데스크
- 화장실
- 비상계단
- 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1F

전시동 1층에는 매표소와 제1전시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카페테리아, 푸드코트, 아트존 등 다양한 편의시설 및 관람객을 위한 수유실과 의무실이 있다. 미술관마당은 주변의 자연 경관과 어우러지는 미술관의 주요 공간이자 열린 휴식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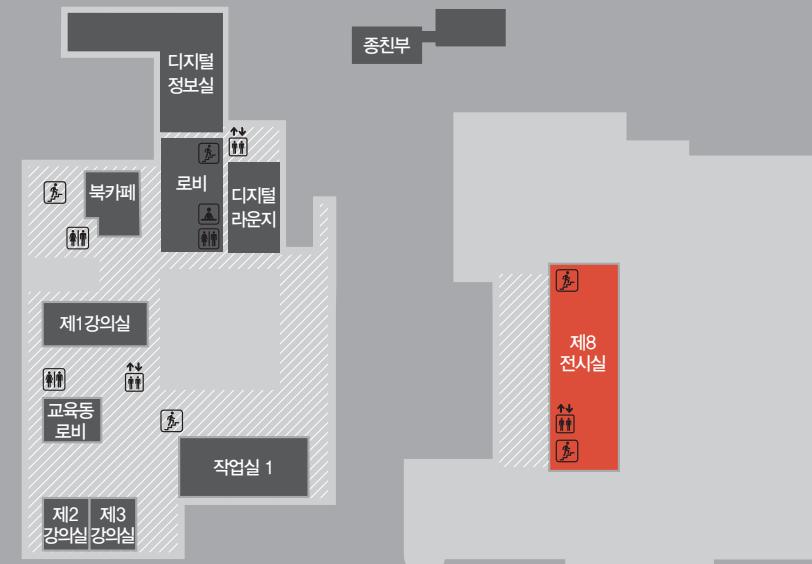
- 매표소
- 화장실
- 비상계단
- 물품보관함
- 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 코트룸
- 수유실
- 의무실



2F

전시동 2층에는 제8전시실이 위치하고 있다. 교육동 2층에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는 3개의 강의실과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디지털 정보실이 자리하고 있다.

- 매표소
- 화장실
- 비상계단
- 엘리베이터



3F

교육동 3층에는 디지털아카이브와 멤버십라운지, 3개의 세미나실이 위치하고 있다. 디지털아카이브는 한국미술 아카이브 자료를 디지털 장치를 통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멤버십라운지는 국립현대미술관 특별회원을 위한 휴식 공간이다.

- 화장실
- 비상계단
- 엘리베이터



덕수궁관 투어맵

3F

덕수궁관 3층에는 제3전시실과 제4전시실이 위치해 있다. 휴식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전시 관람 중 잠시 쉬어갈 수 있다.

화장실
비상계단



2F

덕수궁관 2층에는 제1전시실, 제2전시실을 비롯하여 아트숍과 매표소가 자리하고 있다. 아트숍은 전시 관련 기획 상품들을 비롯한 다양한 아트 상품들을 구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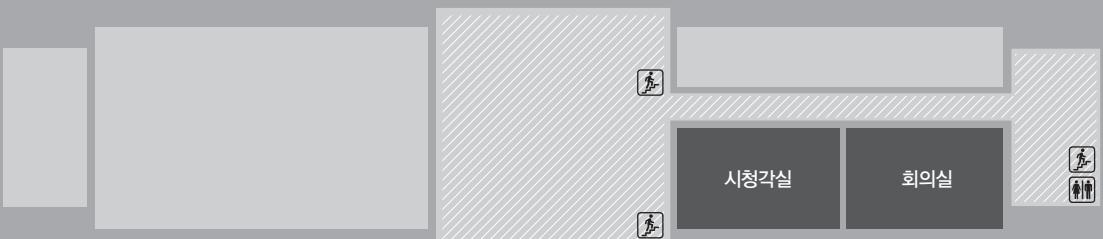
매표소
화장실
비상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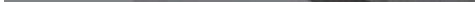
1F

덕수궁관 1층에는 시청각실, 회의실이 위치해 있다. 시청각실과 회의실에서는 덕수궁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문화 행사들이 진행된다.

화장실
비상계단



:미술관 연혁



**1973. 1984.
07.05 03.29**

청사이전 개관
(덕수궁 석조전)

과천미술관
건립공사 착공

발전기2 운영내실화

**2005. 2006.
08.12 01.01**

행정형 책임운영기관 선정 책임운영기관 전환

**2006. 2006.
01.05 05.16**

학예연구실 팀제 운영 작품보존관리실 신설

발전기1 시설·조직 확대

**1986 1986.
08.18 08.25**

작제개정

과천미술관 개관

**1998. 2005.
12.01 05.27**

덕수궁미술관 개관

덕수궁미술관 직제화

도약기 서울관 개관

**2009. 2009.
01.15 12.09**

서울관 건립계획 발표

서울관 건립기본계획 수립·발표

**2011. 2013.
06.15 05.23**

서울관 건립공사 착공

신규 미술관 상징(M) 개발

**2013.
11.13**

서울관 개관



국립현대미술관
VOICE of Metamoria
- 두 개의 시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발행처 국립현대미술관
427-701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www.mmca.go.kr

편집 이기정, 정윤정, 이정민

디자인 아이디어스푼

©국립현대미술관
이 책의 출판저작권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02, 2188, 600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0
02, 3701, 9500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9
02, 2022, 0600